

특별시장 직속 ‘반도체실’ 신설… 4실 8본부 27국 체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하반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행정문화·균형발전·기본사회·산업경제 4부시장 3개 청사 균형 배치·중전 근무지 보장…정원 확충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으로, 반도체·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 3개 청사의 균형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예산·총무·인사·감사 등 주요 지원 기능을

청사별로 균형 있게 나누고, 권역별 특성 에 맞춰 각 청사가 맡을 기능을 체계적으로 조정했다.

행정기구는 현행 4실 7본부 24국에서 4실 8본부 27국으로 개편한다.

시장 직속으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반도체실’을 신설하고, 대변인을 배치한다. 부시장 소관은 기존 행정, 안전 민생, 문화산업, 경제농림 체계에서 행정 문화, 균형발전, 기본사회, 산업경제 체계로 재편한다.

행정문화부시장은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과 문화도시예술본부, 기후환경본부,

광역행정본부를 중심으로 시정기획, 재난 안전, 문화체육, AI모빌리티, 도시교통, 통합공향, 총무·인사를 총괄한다.

균형발전부시장은 균형발전실과 재정 관리본부, 에너지산업본부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조직, 관광, 광역건설, 예산, 에너지,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기능을 총괄하고 산하에 국가AI컴퓨팅센터프로젝트추진단을 신설한다.

기본사회부시장 소관으로 시민주권본부, 청년교육본부와 돌봄복지국, 시민건강국, 포용사회국을 두어 시민참여, 청년·교육, 돌봄·보건, 여성·가족 정책을 총괄하

연결한다.

산업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동부청사에 성장투자유치본부와 통합행정국, 산업혁신키국, 우주첨단소재국, 경제국, 산림정원국을 배치하고, 동부도로관리사업소를 신설해 산업·투자와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한다.

청사 간 기능 배치는 동부·무안·광주 3개 청사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중전 근무지를 보장하고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 조직개편의 수용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무원 총정원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력 증원 등으로 54명이 늘어난다. 2026년 기준인력 42명, 국가AI컴퓨팅센터 프로젝트 추진단 등 한시정원 3명, 시의회 인력 9명을 반영한 규모다.

기준인력은 민·군 통합공향 조성,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자연재난 복구, 하천 정비, 자원회수시설 설치, 산불 대응, 치유농업, 사회연대경제, 체납관리와 지방노동감독 등 현장 수요가 큰 분야에 배치한다. 소방 현장 대응 인력도 보강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불법 종자·모종 유통 단속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김장철을 앞두고 채소 종자와 모종 유통이 활발해지는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의 종자 생산·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불법 종자와 모종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발아 불량 등으로 인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종자 도·소매상과 5일장, 종자업체, 육묘업체 등이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지방정부에 종자업·육묘업을 등록했는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국립종자원에 이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종자와 모종에 품종명칭과 생산연도 등 법정 품질표시 사항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도 점검한다.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종자산업법에 따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종자 유통 단속도 강화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블로그 등 비대면 유통 경로에서 이뤄지는 불법 판매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생산·유통업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종자 유통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종자나 모종을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불법 유통이 의심되면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동구 산수2동 2026 주민총회 개최 산수2동 주민자치회는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친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임택 동구청장, 동구의원, 산수2동 주민들이 참여해 올해 마을 활동을 보고하고 내년 마을의제를 발표하는 산수2동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도시철도 광천상무선·2호선 재점검 TF 추진

광주특별시, 사업추진 현황·타당성 등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도시철도 광천상무선·2호선 공사와 관련해 9월 안에 상세 사업 현황과 추진 방향을 재점검하는 전담팀 (TF)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민형배 시장은 이날 초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건설 계획,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추진 현황 파악과 사업 보안을 재점검해 보자고 광주도시철도공사 등 주무 기관부서에 지시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 민원과 사업비 증가 논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

고, 아직 착공 전인 광천~상무선 사업의 타당성과 적실성 등을 두루 짚어보자’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조마간 꾸러질 민·관 전담팀 (TF)은 이르면 9월 초 첫 회의를 갖고 한 달 내 3차례 가량 무제한 회의로 도시철도 공사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끝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외부 연구용역 의뢰는 시간·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고, 한창 추진 중인 사업 계획 차질과 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TF 재점검 방식을 택한 것이다.

TF는 특별시 녹색도시수석을 중심으로 교통 현업부서와 도시철도공사, 분야별 민간전문가 15명 안팎으로 꾸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들도 참여, 객관적인 속의 과정에 함께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광주특별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공사 사업에 대한 전면 또는 원점 재검토라기 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수준의 재점검이다”며 “상무광천선의 경우 여러 해법들을 고민할 여지가 있었지만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TF 속의 만으로 사업 방향이 크게 흔들릴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특별시, AI·데이터 행정 혁신 앞장 ‘AI 분석도우미’ 자체 개발… 행정 생산성 가속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생성형 인공지능 (AI)을 행정 현장에 적극 도입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대표 모델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업무자동화 (RPA)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반 예비정산 시스템인 ‘AI 여비본’에 이어 공무원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AI 분석 도우미’를 자체 개발해 행정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AI 분석 도우미’는 데이터정보화담당관 데이터분석팀이 지난 2월 개발한 시스템으로, 사전 검증된 기초데이터에 축제·행사용 맞춤형 명령어 (프롬프트)를 단계별로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AI)이 유동 인구와 카드 소비 매출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보고서 초안까지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

데이터분석팀 직원들이 했던 축제·행사 분석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진입장벽은 낮아지고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됐다. 이 같은 자체 분석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광주특별시의 데이터분석 과제 수행 실적은 2023년 9건에서 2024년 16건, 2025년 21건, 올해 27건으로 최근 3년 만에 3배 급증했다.

실제 정책 현장에 적용된 성과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전남 시민의 타공

향 이용실태 분석’ 결과는 국토교통부 간담회 등에서 ‘광주~인천 직항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됐다.

또 ‘돌봄 정책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동별 중점관리군과 의무방문 대상을 도출한 사례는 호남지방데이터청의 ‘2025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데이터행정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빅데이터 분석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민·관 ‘가명처리 결합데이터 분석’ 사업에 참여해 도출한 1인가구 분석 결과는 옛 광주광역시와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및 ‘1인가구 솔로 투게더 사업’의 기초가 됐다.

올해는 전남광주 27개 시·구·군 전역의 소득·대출·소비 데이터를 결합해 금융 취약 직업군과 지역을 발굴하는 ‘금융실태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 소비자 유동 인구 등 기존 데이터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의 실제 행동 패턴을 읽어내기 위해 통신사 앱 사용 기록 등을 활용, 반력동물 산책 집중 지역과 숨은 관광 명소 등을 찾고 있다. 이 결과는 향후 반력견 놀이터 입지 선정 및 신규 관광 콘텐츠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아카데미홀 대관

-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